



요양보호사 교육생의 주관적 삶의 질과 통제위 성격에 관한 조사연구

정 여 숙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 출산·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21세기 중반에는 국민 세 사람 중 한사람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하는, 일찍이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초 고령화 사회를 맞이할 것으로 내다본다. 통계청에 의하면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2% 이르러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2018년에는 14.3%가 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에 이르러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06; 한국노인복지진흥재단, 2008). 노인 인구의 증가는 고령화 속도 면에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에 대비하여 급기야 정부는 2008년 2월 4일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 2008년도 7월부터 시작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고령화로 진전됨에 따라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과 같은 각종 노인성 질환과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장애로 일상생활의 불편이나 의존상태에 있는 대상자에게 간병, 수발,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노인 부양가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노인 인구의 급증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등이 노인 부양의 어려움과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가 한계점에 다다르게 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노인들이 더 이상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게 되어 보다 품

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신경림, 변영순, 2008). 이러한 기대에 상응하는 인력의 배출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교육은 필수 불가결하게 되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 대상자에게 간병, 수발 등 돕는 기능이 주가 된다. 또한 노인 대상자를 가족처럼 보살피는 요양보호사의 성격은 주관적인 삶의 질에 의해 좌우되고 모든 인간 행동의 주체가 되는 것은 성격이며 그 사람의 성격에 의해 행동양상은 좌우된다. 일상생활 활동으로부터 얻는 만족감과 관계되는 주관적인 판단이 삶의 질(Dubos, 1976; Burckhardt, 1985; Padilla, 1985)이고 개인의 현재 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이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된다. 한편 행동이란 성격과 사회적, 물리적 환경 조건들이 상호 작용하는 결과로 어떤 특별한 상황에 있어서 행위나 강화 사이에 있는 주위 환경을 통제하려는 기대와 관련되어 행위에 영향을 준다(Parses, 1976). 그러므로 자신의 활동에서 만족감을 얻을 때 자존감이 높아지고 사람은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환경에 잘 대처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이해심이 깊어진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은 주관적인 안녕감, 행복, 만족감과 같은 개념으로서 긍정적인 정서의 우세성과 생활중에 경험하는 주관적인 안녕이라는 정의(노유자, 1988)와 삶의 질을 일상생활의 적응도라고 한(박혜자, 1988) 바로는 노인의 독특성을 이해하고 수발과 간병 등을 주로 수행하게 될 요양보호사는 삶의 질에서 나타나는 일상생활의 적응력과 긍정적인 정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내다보고, 더 나아가 삶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개인의 태도와 자신의 행동에 의해 결정되거나 외부의 힘이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주요어 : 요양보호사 교육생, 주관적인 삶의 질, 내적·외적 통제위 성격

1) 예수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교신저자 E-mail: ysc@mpu.ac.kr)

투고일: 2008년 5월 6일 심사완료일: 2008년 6월 11일 게재확정일: 2008년 6월 13일

통제위 성격(Parses, 1976)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독특성을 지닌 노인을 대상으로 돌보게 될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한 선행조건이 주관적 삶의 질과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교육생의 특성을 알아보고 그들의 주관적 삶의 질과 통제위 성격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고, 취업지도의 기초 자료를 얻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보호사 교육생의 특성과 주관적 삶의 질 그리고 내적·외적 통제위 성격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요양보호사 교육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의 정도를 파악한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내적·외적 통제위 성격 정도를 파악한다.
- 요양보호사 교육생들의 주관적 삶의 질과 내적·외적 통제위 성격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대상자 선정 시 전주시 지역으로 한정하여 임의 표집한 것이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용어 정의

● 요양보호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 양질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자를 말한다(보건복지부, 2008b).

● 주관적 삶의 질

주관적 삶의 질이란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어떤 사회나 개인의 물리적, 환경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지표 외에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 혹은 만족감을 말하며(Szalai, 1980), 본 연구에서는 Campbell(1976)이 개발하고 이명신(1998)이 번안한 주관적 삶의 질을 측정할 점수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통제위 성격

통제위 성격은 내적·외적 통제위 성격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행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내적 통제위(Internal control)성격, 우연이나 강력한 타인과 같은 외부의 힘이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외적 통제위(External control)성격의 소유자를 말하며(Phares, 1976), 내적 통제위 성격은 삶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개인의 태도나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외적 통제위 성격은 생의 사건들이 운명, 행운, 타인과 같은 외적인 힘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박영신, 김의철, 최영균, 1996). 본 연구에서는 Rotter(1966)가 개발하고 박영신(1995)이 번안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통제위 성격이 강한 정도를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교육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과 내적·외적 통제위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주 시에 개설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을 임의 표집 한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348명으로 하였다.

연구 도구

● 주관적 삶의 질

주관적 삶의 질 측정 도구는 Campbell(1976)의 주관적 삶의 질 척도(Index of Well-Being)를 이명신(1998)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최근의 경험에 대한 감정을 측정하는 8문항을 단일문항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두 개의 형용사를 짝지어 제시하였다(재미있는-지루한, 즐거운-비참한, 가치 있는-쓸모없는, 우호적인-외로운, 가득 찬-텅 빈, 희망적인-비관적인, 보람 있는-실망스러운, 행운이 따르는-운이 없는). 응답방법은 짝진 형용사로 이루어진 어느 한곳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 도구는 7점 척도의 8문항으로 이루어졌고 최고점은 7점, 최저점은 1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느낌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이명신(1998)의 선행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 $\alpha = .90$ 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 $\alpha = .94$ 이었다.

● 통제위 성격

통제위 성격 측정 도구는 Rotter(1966)의 '관념적 정의'에 기초하여 제작된 도구를 박영신(1995)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내적 통제위 성격과 외적 통제위 성격이라는 두개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형으로 '대체로 아니다'에서 '대체로 그렇다'에 이르기 까지 1점에서 5점으로 환산된다. 1번에서 40번 문항 중에서 응답자의 반응 경향성을 줄이기 위해 각 변인을 홀수와 짝수 문항으로 섞었다. 홀수 문항 점수를 합한 값이 내적 통제위 성격 변인 점수로 20문항으로 최고점은 5점, 최저점은 1점, 짝수 문항의 점수를 합한 값이 외적 통제위 성격 변인 점수로 20문항으로 최고점은 5점, 최저점은 1점이다(박영신, 김의철, 최영근, 1996).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 통제위 성격 변인의 경우는 내적 통제위 성격 정도가 강하고, 외적 통제위 성격 변인의 경우는 외적 통제위 성격 정도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박영신 등(1998)의 선행연구에서는 내적 통제위 성격은 Cronbach's $\alpha = .89$, 외적 통제위 성격은 Cronbach's $\alpha = .83$ 이었으며, 본 연구 내적 통제위 성격은 Cronbach's $\alpha = .83$, 외적 통제위 성격은 Cronbach's $\alpha = .84$ 였다.

자료 수집 방법

연구자가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방문하여 교육 책임 담당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생에게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무기명으로 응답한다는 것을 설명하도록 부탁하고 구조화된 설문지 453부를 의뢰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08년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로 교육실시 4-6주 후에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총 348부(76.8%)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9.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되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주관적 삶의 질과 내적 통제위 성격, 외적 통제위 성격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사후 다중비교(Duncan 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 대상자의 주관적 삶의 질과 내적 통제위 성격, 외적 통제위 성격 정도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348)

Variables	Categories	n	%
Age	20-29	12	3.5
	30-39	50	14.4
	40-49	136	39.1
	50-59	142	40.8
	60<	8	2.3
Gender	Male	20	5.8
	Female	328	94.3
Occupation	Housekeeper	150	43.1
	Care taker	69	19.8
	Company employee	20	5.8
	Professional	47	13.5
	Others	54	15.5
	No response	8	2.0
Years of job experience	>3	91	26.2
	3-10	123	35.3
	10-20	64	18.4
	20<	23	6.6
	None	47	13.5
	Marital status	Married	316
Single		22	6.3
Bereavement		5	1.4
No response		5	1.4
Spouse	Yes	297	85.3
	No	28	8.1
	Co-habit	23	6.6
Number of child	None	2	0.6
	1-2	231	66.4
	3-4	91	26.2
	5<	26	6.9
Religion	None	67	19.3
	Christianity	189	54.3
	Catholicism	46	13.2
	Buddhism	33	9.5
	Others	8	2.3
	No response	5	1.4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23	6.6
	Middle school	43	12.4
	High school	170	48.9
	College<	104	29.9
	Others	8	2.3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43	12.4
	100<	68	19.5
	200<	97	27.9
	300<	87	25.0
	400<	43	12.4
	No response	10	2.9
Educational institution	College<	144	41.4
	Nursing academy	137	37.8
	YWCA	73	20.9
	Educational experience	Beginner	222
Experienced		58	16.7
National certification		61	17.5
No response		7	2.0
Willingness for work	Yes	265	76.4
	No	82	23.6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의 분포는 50대가 40.8%(142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40대가 39.1%(136명), 30대가 14.4%(50명), 20대 3.5%(12명)였고 60대 이상 2.3%(8명)순의 교육생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94.3%(328명)가 여성이었고 남성은 5.8%(20명)가 교육에 참여하였다. 직업으로는 주부가 43.1%(150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간병사가 19.8%(69명)였다. 직업에 종사한 햇수는 3-10년 미만이 35.3%(123명)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 상태로는 기혼이 90.8%(316명)로 대부분이었고,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는 85.3%(297명)였고, 자녀수로는 66.4%가 1-2명이 가장 많았다. 종교로는 기독교 54.3%로 과반수였고,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48.9%(170명)로 가장 많았다. 월수입으로는 과반수인 52.9%(184명)가 2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미만이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는 대학이 41.4%(144명)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경험으로 신규가 63.8%(222명)로 과반수이상으로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국가자격소지자가 61명(17.5%)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후 활동계획여부에 대하여 76.4%(265명)의 교육생 대부분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계획이었고 23.6%는 활동 계획은 없고 단 부모를 보다 잘 돌보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주관적 삶의 질 정도

대상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삶에 대한 질의 정도는 <Table 2>와 같이 7점 만점에 총 평균평균 점수가 5.42±1.14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특성별 삶의 질은 나이는 60세 이상에서 삶에 대한 질의 정도 평균평점이 5.64±1.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서 다른 연령 군과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83, P=0.02). 남자는 평균평점 5.75±0.95로 여자 5.40±1.15보다 더 높았고, 직업에서는 간병사가 5.60±1.34로 가장 높았고, 주부가 5.30±1.00으로 가장 낮았으며, 직장에 종사한 기간은 20년 이상이 5.73±0.98로 삶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결혼 상태에서는 기혼자(5.45±1.11)가 미혼자(4.76±1.34)보다 높게(F=3.345, p= 0.01),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5.45±1.11)가 배우자가 없는 대상자(4.92±1.47)보다 삶의 질 점수가 높았으며(F=4.45, p=0.01), 자녀의 수가 없는 대상자가 3.94±0.62로 가장 낮았다. 종교에서는 기독교가(5.52±1.23) 주관적인 삶에 대한 질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은 중졸이(5.58±1.19)로 대졸이상(5.35±1.08)보다 높고, 가족의 월수입이 100만원미만이(5.59±1.37)로 400만원이상(5.41±1.29)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육기관이 간호학원(5.47±1.16)이 여성회관(5.32± 0.99)과 대학(5.33±1.16)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육경험에서 신규(5.47±1.09)가 국가자격소지자(5.30±1.13)보다 주관적인 삶의 질 정도가 높았다. 그리고 교육과정이 끝나고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계획이 있는 대상자(5.48±1.13)가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5.20±1.18)보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을 위해 Duncan test결과 대상자의 연령별 주관적 삶의 질은 60대 이상 군만이 다른 연령 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내적 통제위 성격

대상자의 내적 통제위 성격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내적 통제위 성격은 5점 만점에 총 평균평점은 4.00±0.46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내적 통제위 점수는 60세 이상(4.23±1.02)에서 젊은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여성(4.00±0.46)이 남성(3.99±0.36)보다, 직업은 주부(3.94±0.46)보다 간병사(4.10±0.55)가, 직업에 종사한 기간이 20년이상 대상자(4.16±0.41)에서 내적 통제위 점수가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기혼자(4.01±0.44)가 미혼자(3.83±0.48)보다 내적 통제위 점수가 높았고(F=3.0, p=0.01),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4.00±0.41)가 없는 대상자(3.93±0.42)보다, 자녀가 없는 대상자(4.22±0.25)가 있는 대상자보다, 불교 대상자(4.22±0.65)가 종교가 없는 대상자(3.91±0.41)보다, 교육수준은 중졸(4.10±0.68)이 대학 이상(3.94±0.42)보다, 월수입이 100만원미만(4.10±0.79)이 200만원이상(3.92±0.44)의 대상자 보다 내적 통제위 점수가 높았다.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대상자(4.06±0.33)가 여성회관(3.98±0.42)에서 교육을 받는 대상자 보다, 교육경험은 국가자격소지자(4.02±0.36)가 신규(4.00±0.47)보다,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계획이 있는 대상자(4.01±0.48)가 계획이 없는 자(3.98±0.34)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내적 통제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 통제위 점수는 Duncan test 사후검증결과 결혼 상태에 따라 미혼만이 유의한 차이로 기혼보다 낮은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의 외적 통제위 성격

대상자의 외적 통제위 성격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외적 통제위 성격을 살펴본 결과 5점 만점에 총 평균평점은 3.20±0.62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외적 통제위 점수는 연령이 60세 이상(3.90±1.59)이 가장 높았고, 20대(2.73±0.40)가 가장 낮았으며 연령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9.77, p=0.00). 성별에서는 여성(3.21±

<Table 2> Difference of subjective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48)

Characteristics	Categories	Subjective quality of life			
		Mean±SD	t or F	p	Duncan
Age *	20-29	4.64±0.84	2.83	0.02	A
	30-39	5.33±1.19			
	40-49	5.45±1.12			
	50-59	5.48±1.18			
	60<	5.64±1.00			
Gender *	Male	5.75±0.95	1.82	0.18	
	Female	5.40±1.15			
Occupation	Housekeeper	5.30±1.00	1.43	0.21	
	Care taker	5.60±1.34			
	Company employee	5.16±1.31			
	Professional	5.38±1.32			
	Others	5.53±1.01			
Years of job experience	>3	5.33±1.31	0.56	0.69	
	3-10	5.41±0.99			
	10-20	5.47±1.22			
	20<	5.73±0.98			
Marital status	Married	5.45±1.11	3.34	0.01	A
	Single	4.76±1.34			
	bereavement	6.58±0.45			
Spouse *	Yes	5.49±1.09	4.45	0.01	A
	No	4.92±1.47			
	Co-habit	5.01±1.16			
Number of child *	0	3.94±0.62	1.62	0.18	
	1-2	5.47±1.12			
	3-4	5.38±1.16			
	5<	5.19±1.25			
Religion	None	5.21±1.06	0.97	0.45	
	Christianity	5.52±1.23			
	Catholicism	5.34±1.26			
	Buddhism	5.47±1.10			
	Others	5.03±1.53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5.43±1.63	0.34	0.85	
	Middle school	5.58±1.19			
	High school	5.42±1.11			
	College<	5.35±1.08			
	Others	5.21±0.88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5.59±1.37	0.88	0.50	
	100<	5.46±1.04			
	200<	5.23±1.21			
	300<	5.45±0.96			
	400<	5.41±1.29			
Educational institution *	College<	5.33±1.16	0.75	0.65	
	Nursing academy	5.47±1.16			
	YWCA	5.32±0.99			
Educational experience	Beginner	5.47±1.09	0.50	0.74	
	Experienced	5.38±1.35			
	National certification	5.30±1.13			
Willingness for work *	Yes	5.48±1.13	3.94	0.05	
	No	5.20±1.18			
Total mean score		5.42±1.14			

Excluding no response of characteristics *

A, B, C, D: means with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able 3> Difference of Locus of control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48)

Characteristics	Categories	Internal			External				
		Mean±SD	t or F	p	Duncan	Mean±SD	t or F	p	Duncan
Age *	20-29	3.81±0.93	1.97	0.09	2.73±0.40	9.77	0.00	A	
	30-39	3.91±0.41			2.87±0.39			B	
	40-49	3.99±0.41			3.19±0.57			BC	
	50-59	4.05±1.46			3.31±0.60			CD	
	60<	4.23±1.02			3.90±1.59			D	
Gender *	Male	3.99±0.36	0.02	0.88	2.94±0.57	3.66	0.06		
	Female	4.00±0.46			3.21±0.63				
Occupation	Housekeeper	3.94±0.46	1.96	0.07	3.22±0.53	2.91	0.01	A	
	Care taker	4.10±0.55			3.40±0.80			A	
	Company employee	4.01±0.33			3.03±0.73			A	
	Professional	4.07±0.42			3.00±0.59			A	
	Others	3.97±0.81			3.07±0.50			A	
Years of job experience *	>3	3.99±0.58	0.77	0.54	3.23±0.73	0.64	0.63		
	3-10	4.00±0.44			3.16±0.59				
	10-20	3.98±0.48			3.13±0.53				
	20<	4.16±0.41			3.16±0.62				
Marital status	Married	4.01±0.44	3.0	0.01	3.19±0.61	2.13	0.06		
	Single	3.83±0.48			3.06±0.70			B	
	Bereavement	4.16±0.35			3.45±0.93			A	
Spouse *	Yes	4.00±0.41	0.88	0.45	3.17±0.56	1.31	0.27		
	No	3.93±0.42			3.39±0.58				
	Co-habit	4.13±0.89			3.31±1.20				
Number of child	0	4.22±0.25	1.16	0.92	3.00±0.21	0.34	0.80		
	1-2	4.00±0.40			3.19±0.59				
	3-4	4.01±0.55			3.23±0.69				
	5<	4.01±0.62			3.10±0.71				
Religion	None	3.91±0.41	2.04	0.06	3.26±0.57	1.06	0.34		
	Christianity	4.00±0.43			3.14±0.67				
	Catholicism	4.05±0.40			3.20±0.52				
	Buddhism	4.22±0.65			3.36±0.62				
	Others	3.84±0.45			3.24±1.54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4.08±0.55	1.20	.31	3.74±0.73	9.65	0.00	A	
	Middle school	4.10±0.68			3.38±0.89			B	
	High school	4.01±0.38			3.20±0.53			BC	
	College<	3.94±0.42			2.97±0.51			C	
	Others	4.08±0.59			3.37±0.62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4.10±0.79	1.24	0.29	3.55±0.89	3.81	0.00	A	
	100<	4.00±0.36			3.18±0.54			B	
	200<	3.92±0.44			3.16±0.62			B	
	300<	4.05±0.38			3.07±0.52			B	
	400<	4.02±0.33			3.17±0.54			B	
Educational institution *	College<	4.06±0.33	0.52	0.84	3.16±0.46	2.06	0.04	A	
	Nursing academy	3.99±0.51			3.12±0.67			A	
	YWCA	3.98±0.42			3.18±0.55			A	
Educational experience	Beginner	4.00±0.47	1.26	0.28	3.26±0.63	4.15	0.00	A	
	Experienced	4.00±0.42			3.24±0.56			A	
	National certification	4.02±0.36			2.91±0.54			A	
Willingness * for work	Yes	4.01±0.48	0.29	0.59	3.25±0.63	8.71	0.00	A	
	No	3.98±0.34			3.02±0.57			B	
Total mean score		4.00±0.46				3.20±0.62			

Excluding no response of characteristics *

A, B, C, D: means with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0.63)이 남성(2.94±0.57)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직업에서는 간병사(3.40±0.80)가 전문직(3.00±0.59)보다 높았으며(2.91±0.01), 직업 종사기간이 3년 미만으로 응답한 대상자(3.23±0.73)가 10-20년 종사자(3.13±0.53)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혼(3.19±0.61)이 미혼(3.06±0.70)보다 높았으며, 배우자가 없는 대상자(3.39±0.58)가 있는 대상자(3.17±0.56)보다 높았고, 자녀가 있는 대상자보다 자녀가 없는 대상자(3.00±0.21)가 외적 통제위 점수가 낮았다. 종교에서는 불교를 믿는 대상자(3.36±0.62)가 외적 통제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3.74±0.73)가 대학이상(2.97±0.51)보다는 높게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9.65, p=0.00). 월수입은 100만원미만(3.55±0.89)이 300만원이상(3.07±0.52)보다 높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3.81±0.00).

여성회관에서 교육받는 대상자(3.18±0.55)가 타기관보다 높았으며(2.06±0.04), 교육경험으로는 신규로 교육받는 대상자(3.26±0.63)가 국가자격소지자(2.91±0.54)보다 점수가 높았으며(4.15±0.00),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계획이 있는 대상자(3.25±0.63)가 계획이 없다는 대상자(3.02±0.57)보다 유의한 차이로 외적 통제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t=8.71, p=0.00).

일반적 특성별 외적 통제위 점수의 Duncan 사후 검정결과는 2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교육수준 별 외적통제위 점수는 초등학교 졸업이 유의한 차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수입에 따른 외적 통제위도 월수입이 100만원이하가 가장 높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육 후 요양보호사 활동계획이 있는 대상자가 외적 통제위 점수가 높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의 삶의 질과 통제위 성격간의 관계

대상자의 주관적 삶의 질과 내적·외적 통제위 성격간의 상관관계를 알아 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주관적 삶의 질 정도와 내적 통제위 성격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r=0.23, p=0.0001)였고, 외적통제위 성격은 약한 역 상관관계(r=-0.008, p=0.12)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Table 4> Correlation of subjective quality of life and locus of control

Variables	ILC		ELC	
	r	p	r	p
SQL	0.23	0.0001	-0.008	0.12

* SQL(Subjective quality of life), ILC(Internal locus of control), ELC(External locus of control)

논 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처하면서, 노인의 특성과 노인성 질환에 적합한 노인의료시스템의 구축이 의료보장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다(장병원, 2008).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2008년 7월에 시행하여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자격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개정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 2008. 2. 4 시행)를 마련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한 자격조건은 소정의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요양보호사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노인복지법 부칙 제7조).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른 교육내용으로는 요양보호사의 기본업무 준수를 위한 기본원칙과 지켜야 할 윤리강령, 신뢰받을 수 있는 직업적 태도를 우선적으로 갖추고 요양보호를 위한 기술 등을 공통으로 학습한 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보호사 교육생의 특성과 주관적 삶의 질 및 통제위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련된 연구 보고가 없어 기존 연구들과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본 연구결과에 대해서만 주로 서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연령은 40, 50대가 79.9%로 자녀들의 보살핌이 적은 중년기가 많았다. 교육의 연령 제한이 없으므로 연령의 분포는 20대에서 60대까지 고르게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주 대상자이였으나 남성도 요양보호사에 관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업에서는 가정주부가 43%로 가장 많이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이는 사회활동의 기회를 갖고자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86.5%가 직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음은 대부분 경제 활동에 참여했던 자이며, 보장받는 국가자격증이 부여되는 요양보호사에 매력을 느끼고 새로운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이라고 보겠다. 결혼 상태는 기혼 대상자가,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가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녀수도 1-2명(66.4%)이 가장 많아서 대체로 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종교로는 기독교가 54.3%로 과반수였고, 교육수준은 누구나 원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에서도 고등학교 이상의 수준이 78.8%로 나타난 반면 중학교이하가 19%인 점을 고려하여 교육을 하는데 전문 용어 등을 이해하는데 설명이 많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야 될 것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은 200만원이상인 대상

자가 가장 많았으나 100만원미만-200만원이 31.9% 차지한 것을 보면 대상자의 경제적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 교육을 개설한 기관으로 대학, 간호대학, 여성회관 등 여러 기관에서 개설한 점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예측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신규가 63.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76.4%가 요양보호사로 활동 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체계적인 취업지도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삶의 질의 총 평균평점은 5.42±1.14로 삶의 질의 정도가 대체로 높은 것을 볼 수 있었고,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은 연령으로 60세 이상이 20대보다 월등하게 유의한 차로 높았고 사후 검증결과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결혼 상태에서는 사별한자와 기혼자, 미혼자들의 순으로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으나 사별군이 전체 대상자의 수에 비하여 1.4%의 매우 소수에 불과하여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기혼(90.8%)인 대상자가 유의하게 주관적인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종렬, 박천만(2000)의 연구에서도 기혼자가 평균 점수가 높았다. 배우자가 있는 그룹(86.4%)이 삶의 질에 대한 평균점수가 높은 것은, 이는 윤복연(2006)이 미용업 종사자의 삶의 질에서도 19세 이하에서 40세 이상의 범주로 분석한 결과 40세 이상에서 유의한 차로 삶의 질 수준이 높았고, 김미경(2001)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종렬, 박천만(2000)은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연령이 많은 군과 기혼자가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은 것과 일치한 결과였다. 월수입이 많은 군이 삶의 질 평균점수가 높다고 노유자(1988), 김미경(2001), 이종렬, 박천만(2000)의 연구에서는 밝혔으나 본 연구에서는 특이하게 월수입이 가장 낮은 군에서 삶의 질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교육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중졸이하의 대상자가 대체로 삶의 질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명신(1998)의 근로자 대상으로 한 연구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김미경(2001)의 연구에서 학력이 높은 군이 삶의 질이 높다고 보고 한 것과는 상이한 것으로 볼 때 경제 및 교육수준과 삶의 질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결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은 그의 과거 강화경험이나 학습에 의존하여 내적 혹은 외적 통제위에 대한 믿음으로 일관된 태도를 발달시키는 것으로서 개인의 통제위를 아는 것은 특별한 상황에서의 행동을 예측하고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계획을 가능하게 한다(강경아, 1990).

Parses(1976)는 통제위란 특별한 상황에 있어서의 일반화된 기대로서 작용하는 개인의 일관된 성향 또는 성격이라 하며 행위나 강화 사이에 있는 주위환경에 대처하는 개인의 능력이나 주위환경을 통제하려는 기대와 관련된 행위이고 속성으

로 말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내적 통제위 성격과 외적 통제위 성격의 총 평균평점이 각각 4.00±0.46, 3.20±0.62로 내적 통제위 성격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내적 통제위 성격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변수는 결혼 상태로 기혼자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내적 통제위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자의 생활경험에 의한 통제력과 가족의 공동체 내의 삶에서 얻어진 성숙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외적 통제위 성격과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은 군에서, 월수입이 적은 군에서, 교육을 처음 받는 신규 그룹과 요양보호사 교육 후 활동 계획이 있는 군에서 외적 통제위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Skrickland(1978)는 내적 통제위 성격은 외적 통제위 성격 보다 정서적인 장애가 없고, 자신들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지만 외적 통제위 성격은 불안, 우울 및 부적응 등이 있다는 보고를 감안할 때,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현대사회에서는 인성 편향이 외부로 기울어진 사람이 전체의 75%가 이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Wayne(2006)이 말한 바 있으므로 대상자에게 폭넓은 인간관계를 갖고 꾸준한 자기 개발로 원만한 대인관계와 자기 성찰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해야 될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주관적 삶의 질 정도와 내적·외적 통제위 성격간의 상관관계를 알아 본 결과 대상자의 주관적 삶의 질 정도와 내적 통제위 성격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었고 외적 통제위 성격은 삶의 질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약한 역상관계가 있는 것을 볼 때 외적 통제위 성격이 강할수록 삶의 질은 낮아 질 수 있는 성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 볼 수 있는 결과였다. 대상자의 내적 통제위 성격과 주관적인 삶의 질의 관계가 긍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볼 때 요양보호사로서 역할 수행에 있어서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잘 통제하고 극복할 수 있으며 돌보는 노인 대상자에게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자아 성취감으로 인한 삶에 대한 만족은 물론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교육생들의 특성과 주관적 삶의 질, 내적·외적 통제위 성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전주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 34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8년 3월27일부터 4월8일까지였으며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방문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동의한 대상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도구는 주관적 질 척도(Index of Well-being)와 통제위 성격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9.1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빈도(frequency), 백분율(percentage), 평균(mean),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증을 위해 Duncan test를 하였고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의 분포는 50대가 40.8%로 가장 많았으며, 40대도 39.1%였고, 성별은 대부분 여성으로 94.3%였으며 직업으로는 주부가 43.1%로 가장 많았으나, 주부를 제외하면 간병사가 19.8%로 가장 많았다. 직업에 종사한 햇수는 3년 미만인 26.2%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 상태로는 기혼이 90.8%로 대부분이었고, 배우자 여부에서 85.3%가 배우자가 있었다. 자녀수로는 1-2명이 66.4%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로는 기독교 54.3%로 과반수였고, 교육수준으로는 고등학교 졸업이 48.9%로 가장 많았다. 월수입으로는 과반수인 52.9%가 2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미만이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는 대학이 41.4%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경험으로 신규가 63.8%이 가장 많았고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후 활동계획 여부는 그렇다가 76.4%로 나타났다.
- 대상자의 주관적 삶의 질의 총 평균평점은 5.42± 1.14점으로 나타났고 특성에 따른 주관적인 삶의 질 정도는 연령 60대 이상이 평균 5.64±1.00로 유의한 차이로 가장 높았고 (F=2.83, p=0.02), 결혼 상태는 사별이 6.58±0.45(F=3.34, p=0.01),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는 5.49±1.09(F=4.45, p=0.01),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계획이 있는 대상자가 평균 5.48±1.13 (t=3.94, p=0.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내적 통제위 성격은 5점 만점에 총 평균평점은 4.00± 0.46으로 나타났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내적 통제위 성격 정도는 결혼 상태에서 미혼이 평균 3.83±0.48(F=3.0, p=0.01)로 가장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외적 통제위 성격의 총 평균평점은 3.20±0.62로 나타났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외적통제위성격 정도는 연령에서 60세 이상이 평균평점 3.90±1.59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2.73±0.40으로 가장 낮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9.77, p=0.00). 직업은 간병사가 평균평점 3.40±0.80(F=2.91, p=0.01)으로,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가 평균평점 3.74±0.73(F=9.65, p=0.00)으로 가장 높았고, 월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평균 3.55± 0.89(F=3.81, p=0.00)로 가장 높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육기관은 여성회관에서 교육 받는 대상자가 평균평점

3.18±0.55(F=2.06, p=0.04), 교육 경험은 신규가 3.26± 0.63 (F=4.15, p=0.00)로 높았으며,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계획이 있는 대상자가 평균평점 3.25± 0.63(t=8.71, p=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대상자의 주관적 삶의 질과 내·외적 통제위 성격간의 상관관계는 주관적 삶의 질 정도와 내적 통제위 성격 간에는 유의한 순 상관관계(r=0.23, p=0.0001)가 있었고 외적통제위 성격은 역 상관관계(r=-0.008, p=0.1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요양보호사 교육 전·후 주관적인 삶의 질과 통제위 성격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 내적·외적 통제위 성격을 강화 또는 조절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경아 (1990). *혈액 투석환자의 내외적통제위 성격과 삶의 질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김미경 (2001). *건강증진행위 수준과 삶의 질 간의 관련성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노유자 (1988). *서울지역 중년기 여성의 삶의 질에 관한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서울.

박영신 (1995). 대학 학업성취집단과 성별에 따른 통제부위신념의 차이. *교육심리연구*, 9(1), 13-58.

박영신, 김의철, 최영균 (1996). 한국대학생과 중국 조선족 및 한족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통제부위신념 비교. *교육심리연구*, 10(2), 171-195.

박혜자 (1988). *투석유형에 따른 만성신부전환자의 생리적 변화 및 일상생활 적응도 비교*.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2008).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설명회 자료집*.

신경림, 변영순 (2008). 2급 노인장기요양보호사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성인간호학회지*, 20(2), 251-268.

윤복연 (2006). *미용업종사자들의 건강증진행위와 삶의 질에 관한 관련요인 분석*.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대구.

이명신 (1998). *근로자의 주관적 삶의 질과 그 영향요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서울.

이종렬, 박천만 (2000). WHOQOL-Bref를 이용한 대구시민의 삶의 질. *보건행정학회지*, 10(3), 129-154.

장병원 (2008). *일본 노인 장기요양 정책*. 서울: 양서원.

- 통계청 (2006). 2005년 사망원인에 관한 통계. 2008, 6월 5일 검색, Web site: <http://www.nso.go.kr>
- 한국노인복지진흥재단 (2008). *요양보호개론*. 서울: 양서원.
- Burckhardt, B. H. (1985). The impact of arthritis on quality of life. *Nurs Res*, 34(1), 11-16.
-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 Psychol*, 12, 117-124.
- Dubos, R. (1976). The state of health and the quality of life. *West J Med*, 125, 8-9.
- Padilla, G. V., & Grant, M. (1985). Quality of life as a cancer nursing outcome variable. *ANS*, 8(1), 45-57.
- Parses, E. J. (1976). *Locus of control in personality*, Morristown, General Learning Press.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 Mono*, 80(1), 1-28.
- Rotter, J. J. (1975). Some problems and misconcepts related to the construct of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J Consult Clin Psychol*, 43(2), 56-57.
- Strickland, B. R. (1978). Internal-external expectancies and health-related behaviors. *J Consult Clin Psychol*, 46(6), 1190-1200.
- Szalai, A. (1980). The meaning of comparative research on the quality of life. In A. Szalai & F. M Andrews(Eds). *The quality of life: comparative studies*. Beverly Hills, California: SAGE Publication, 7-21.
- Wayne, W. D. (2006). *행복한 이기주의자*. 서울: 21세기북스.

A Study of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and Locus of Control of Caregiver Trainees

Chung, Yeo Sook¹⁾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Margaret Pritchard University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caregiver trainees, and to understand the degree of subjective quality of life and internal and external locus control,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se variables. **Method:** The subjects of the research were 348 trainees at a Jeonju city caregiver training center.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and the characteristics of locus control were used as measuring tool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the SAS 9.1 program. **Result:** The degree of subjective quality of lif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age ($F=2.83$, $p=0.02$), marital status ($F=3.34$, $p=0.01$), and willingness to work ($F=3.94$, $p=0.05$). The degree of internal locus control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 of marital status ($F=3.0$, $p=0.01$). External locus control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age ($F=9.77$, $p=0.00$), occupation ($F=2.91$, $p=0.01$), educational level ($F=9.65$, $p=0.00$), monthly income ($F=3.81$, $p=0.00$), educational institution ($F=2.06$, $p=0.04$), educational experience ($F=4.15$, $p=0.00$), and subjects willingness to work ($t=8.71$, $p=0.00$). A significant correlation was identified between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and internal locus control ($r=0.23$, $p=0.0001$). **Conclusion:** A significant correlation was shown between subjective quality of life and internal locus control of the caregiver trainees.

Key words : Caregiver, Quality of life, Locus of control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Chung, Yeo Sook

Department of Nursing, Margaret Pritchard University
168-1, 1ka, Junghwasandong, Jeonju, Jeonbuk, Korea
Tel: 82-63-230-7762 Fax: 82-63-230-7790 E-mail: ysc@mpu.ac.kr